나와 하나님의 결별이유

(호세아 1:1~2:1)

1.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4.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5. 그 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6.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7.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뗀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결별이유>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결별이유'

본문 9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는 뜻의 로암미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과 결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별은 선민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기에 결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러한 결별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선민이 가지고 있는 고약한 특권 때문입니다. 여기서 고약하다는 말은 순우리말로써 조선시대 한 인물의 이름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때에 신하들 중에 형조참판 고약해(高若海)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사건건 세종대왕을 걸고넘어지며 직언을 일삼았습니다. 강원도와 충청도 관찰사

로 지낼 때에는 기생을 수레에 태워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창기제도를 혁파하라는 상소를 올립니다. 왕이 보기에 신하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니 꾸짖으며 상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무례할 정도로 상소를 올리다가 결국 파직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의 권고로 다시 복직되어서 황주 목사에 이어 형조참판의 벼슬을 지내게 되었는데 기어코 또 사단이 벌어집니다. 세종대왕이 지방수령의 임기를 정해둔 수령육기법을 3년에서 6년으로 바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길어지니 부정부패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세종대왕의 정책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정작 자신은 6년간 수령직을 마치고 나서야 이러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또 파직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시 복직되는데 1년 후에 별세하고 맙니다.
그런데 고약해의 그칠 줄 모르는 쓴 소리에 지친 세종대왕이 경우에 맞지 않은 넌더리나는 신하를 만날 때마다 고약해 같다는 소리를 했답니다. 이후에도 반론을 펴거나 고집부리기를 충성어린 직언과 혼동하는 신하들을 일컬어 고약해 같은 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약하다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을 바라보실 때에 이렇게 고약하게 여기시고 넌더리를 내시며 결별을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대체 선민이 어떤 상태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영원히 끝내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결별할 수 있다는 것이 선민의 특권이라면 이것은 가장 고약한 특권일 것입니다. 이런 고약한 특권이 발휘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넌더리를 내실 수밖에 없는 일을 선민들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우리는 먼저 선민에 대한 오해부터 풀어야만 합니다. 선민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이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민들을 얼마든지 버리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출애굽을 시키신 후에 60만 장정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오늘 호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북 왕국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이후에 남 왕국 유다도 버리십니다.
우리는 항상 선민의 회복을 언급하지만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애초에 선민이 버려진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문 10절로부터 다음 장인 2장 1절까지 선민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은 아닙니다. BC.722년에 앗수르의 공격을 받은 북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결별 선언을 받은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결별 선언을 받은 자들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석들 또한 이러한 점에서 요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이 하나님의 회복만을 강조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돌이킨 자들은 선민의 위치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별과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선민들 중에서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민의 대표적 회복 사건으로 볼 수 있는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도 선민이라는 의미에서 보자면 회복이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보자면 잡혀갔던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 땅에서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의 결별이라는 상태에서 끝이 난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기까지는 70년의 세월이 지나야 했으니 나라의 멸망에 책임이 없었던 젊은이들만이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만 봐도 90살이 넘었습니다. 포로귀환자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결별 선언을 하실 때에 멸망과 관계없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들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과 결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신앙이 탄력을 받지 못합니다.

본문을 보면 호세아가 활동을 시작할 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때는 BC.755년경으로써 북 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로써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존재감을 가졌던 왕이었습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최전성기였고 영토 또한 남 왕국 유다의 영토를 제외한다면 북쪽으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거의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과 30년 만에 북 왕국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소멸되어 없어지리라는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할 때에 호세아는 북 왕국 이스라엘이 로암미라는 말이 뜻하는 대로 완전히 하나님과 결별되는 선언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북 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바로 선민이 하나님과 결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2절을 보면 호세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타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에 따라 고멜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고멜은 바알 숭배를 위한 신전에서 상주하던 창기였으리라 추측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멜이 누군지 몰랐다면 이러한 결혼이 상징성을 갖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의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선민과 결별하시는 단계를 밟는 과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었습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혈육상의 외형, 민족과 나라라는 외형을 흩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외형들을 다 깨뜨리시고 흩으셔서 민족과 국가라는 단위로 선택하시지 않을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루하마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이는 긍휼이 그쳤다, 긍휼이 없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음란함에 대해 이

해해야만 하고, 또 영적 음란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조에 대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삼위일체의 관계에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며 또한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 삼위일체는 서로가 서로를 채우시는 관계입니다. 이 일체되심 안에서 기쁨이 발생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로써 인간은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마음 공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채워지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발생하는 기쁨과 만족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위일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만족이란 에피쿠로스학파가 주장하던 쾌락의 추구보다는 훨씬 존재론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학파는 마음의 평온을 최고의 쾌락으로 보고 추구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연관된 기쁨과 만족은 나라는 존재가 추구할 목표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 크기의 공백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활동은 이 공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허기가 져서 무엇이든 먹음으로 끼니를 해결하려는 것과 끼니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차이와도 같습니다. 에피쿠로스학파가 주장했던 쾌락의 추구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과 만족은 끼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맛을 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끼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기쁨과 만족을 향해 갈 수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 한 마디나 행동조차도 쾌락의 선택적 추구가 아니라 마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써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마음 공백을 채워서 기쁨을 얻으려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 영적인 음란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로써 인간의 마음 공백을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마음 공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서 하는 모든 행동은 채움을 위한 기쁨과 만족의 추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시 받지 못한 사람은 본래 마음을 채울 대상인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연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연히 세상을 담기는 하였지만 본래 담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시기에 이로 인해 더러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러움일 뿐이지 음란함은 아닙니다.

한편 선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시내 산

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곧 하나님과 선민의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 들이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겠음을 약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민은 신부된 입장으로써 마음에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들여놓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선민이 마음에 하나님 이외의 대상을 들여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더러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함이고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에게서 결국 이러한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젖혀두고 이 세상의 대상들을 통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 선지자 호세아를 바알 신전에 상주하던 창기 고멜과 결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음란함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선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쉽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서울대학에 들어간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교회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연을 열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고 축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서 자녀의 서울대 입학이 하나님을 대신하였다면 영적 음란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의 서울대 입학을 무조건적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기쁜 상태에서 자녀의 서울대 입학을 마주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기쁨 또한 올바르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참여하여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 우리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셨고 제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 대신에 자녀의 서울대 입학으로 기뻐하게 되었다면 영적인 더러움을 넘어서 음란함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치로 기뻐하는 것이 운명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이유는 그로인해 기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민의 자격이란 세상의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들에 대해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진 기쁜 상태에서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생긴 기쁨으로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일들 또한 대처하고 처리해 나갈 수 있을 뿐이지 결코 세상의 가치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선민들이 음란을 행한 대표적 대상은 바알 숭배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우상숭배 자체를 음란함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착각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든 금송아지를 숭배하든 그것은 이미 마음이 영적인 음란함이 생겼을 때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열매일 뿐입니다. 선민들의 마음은 이미 풍요와 다산이라는 대상에 빠져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알 숭배나 금송아지 숭배로 나타난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계시 받지 못한 이방인이 마음에 풍요와 다산을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여

긴 결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마음의 더러움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시 받은 선민이 이방인과 똑같이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음란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도 일반화되어서 이를 음란함으로 깨닫는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누구나 다 아는 음란함의 대명사였던 바알 신전의 창기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하심으로써 이를 드러내십니다.

호세아의 딸이었던 로루하마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긍휼을 끊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선민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발동되어서 선민에게 임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드셨습니다. 슬퍼하고 염려하는 것조차 결국은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이 생기지 않을까 근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인간은 불쌍히 여길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넘쳐나시는데 인간은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기쁨과 만족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민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을 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선민들의 마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은 하나님 대신 풍요와 다산이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본래 선민은 하나님 이외에는 기뻐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것이었듯이 선민은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거지 나사로에게는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사로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부자는 많은 재산으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얻었고 하나님을 담을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에 긍휼히 여기실 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이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갖지 못함을 보실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채워서 기쁨과 만족을 얻었다면 긍휼을 베푸실 이유도 없습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바로 이 부자와도 같았습니다. 풍요와 다산이 기쁨과 만족을 주리라 굳게 믿으며 추구하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당신을 주심으로써 마음을 채워주시는 긍휼하심을 베푸실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민을 단번에 포기하시지 않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애초에 세상의 어떤 대상으로도 하나님 크기의 마음 공백을 온전히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추구하는 일을 안 되게 하심을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장사를 하는 성도가 장사가 안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아직 긍휼을 거두시지 않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불통하다면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아직도 긍휼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잘 풀려봤자 하나님 크기로 만들어진 마음 공백은 채워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리셔도 돌이키지 않고 음란함의 상태를 지속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긍휼을 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문 10절 이하에는 선민의 회복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한 우두머리로 표현된 메시아의 등장이 예언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회복이 음란한 상태의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석들도 이 부분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음란함으로부터의 회복이라 막연하게 해석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세아의 예언을 들은 북 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BC.722년에 멸망과 동시에 흩어지게 됩니다. 10절부터 나타나는 회복의 내용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회복이 아닌 새로운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선택하신다는 예언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은 영적인 음란함으로 인해 분명히 버려졌습니다.
앞서 보았던 첫째 아들 이스르엘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후로는 하나님이 민족이나 나라나 단체 단위로 선민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던 교부들의 말은 교회라는 단체가 통째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의 유일한 복음의 길이 전파되고 관리되리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체에 들어온다고 해서 선민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개개인이 영적인 음란함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통해서 구원은 결정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신부로 삼으신 선민으로써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음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면 그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선민이라면 기쁨과 만족의 대상을 오직 하나님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선택을 기다리는 대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 자녀, 배우자, 건강, 취미 등의 것들이 마음의 선택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러한 대상이 기쁨을 준다고 믿어지려고 할 때마다 이것이 영적인 음란함의 단계로 접어들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상태에서 취미 생활도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상태에서 장사도 해야 합니다. 흑자를 보든 적자를 보든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붙박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이 없으면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는 것입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버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마음 공백에 하나님의 들어오심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먼저 영적인 음란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끊어냈기에 결과적으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러움이 주어진 운명이라면, 선민에게는 이 더러움이 음란함으로 바뀌는 것이 운명처럼 주어지게 됩니다. 이 운명을 이겨내는 길은 십자가 생활화 이외는 없습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심을 인정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곧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기쁨과 만족의 대상들에 대한 죽음을 뜻합니다. 더 이상 세상 때문에 웃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웃을 일을 찾거나 기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오직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마주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받아들이고 계신 하나님을 나도 주님 안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전까지는 자녀도 배우자도 부모도 마주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얻기 전에 세상을 마주한다면 마음에서는 세상이 기쁨과 만족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고 영적 음란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웃고 나가서 사는 동안에도 계속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함을 통해 이 세상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북 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을 하게 된 이유는 영적인 음란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 생활화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이 불가능하거나 남의 일이거나 전설 속의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게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운명적으로 발생하는 영적인 음란함을 퇴치하기 위하여 오늘도 십자가 생활화에 마음을 몰입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